

서 평 지

서평 제목	유쾌한 비웃음이 필요한 당신에게	참가번호	2023-20
도 서 명	코스모스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 서평지 2매, 글자수 1,500자 이상(공백제외) 작성
 ※ 함초롱바탕, 폰트크기(11pt), 줄간격(160%)

웃기게도, 우리는 여태껏 탐구 중이다. 오랜 기간 궁금해하고 학습하고 고민해 왔으나 여전히 궁금해하고 학습하고 고민하고 있다. 정답 없는 문제지에서 정답을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더 수다스러워지고 현학적인 글을 쓰게 되었는지 모른다. 가공할 속도로 ‘빅뱅’ 하는 머릿속을 타인에게 공유하고 ‘혹시 답을 아느냐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려한 말솜씨가, 그 정도 우수한 글솜씨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점에 가면 ‘이달의 베스트셀러’ 코너가 뽐내고 있다. 유명세로 책을 가늠하기 위해서라면 ‘백년간의 베스트셀러’, 예라 모르겠다! ‘전(全) 인류사의 베스트셀러’가 더 유용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독자들은 항상 ‘지금’의 정답에 목이 마른다.

몇 년째 서점의 유행은 ‘심리학’과 ‘큰돈 버는 방법’이다. 최근엔 인지심리학, 뇌과학처럼 ‘과학적인 심리학’ 책이 부상하고 있다. 전에는 ‘관계 잘 맺는 법’, 그전에는 ‘말 잘하는 법’이었던 것 같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정해진 답을 찾고 싶다. 전지적인 누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근거까지 더해 불안을 잠재워 주기를 공상한다.

그러나 그 불안은 얼마나 무상한가? ‘삼포세대’에서 ‘오포세대’로, ‘인싸’에서 ‘아싸’로, ‘혈액형’에서 ‘MBTI’로. 우리의 불안은 사회와 환경으로 말미암았으나 그조차 독립되기보다 편승한다. 불안조차 남과 비슷해야 안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대화해야 한다. 요즘 유행이 아니라 요즘 어떤지에 대해.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좋은지에 대해. 우리의 불안이 우리 것인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답이 정말로 가치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 대화해 보자. 시시때때로 익명의 포스트잇과 꽃다발로 거리 위 장례를 치르며 울분한 한국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멀고 높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시야에서는 너나 나나 개나 재나 우리 헛똑똑이들 모두가 ‘분류: 호모사피엔스’라서 구태여 미워하기가 어렵고 사랑하기는 쉽다.

‘코스모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할 대화에서 나는, 이 말부터 꺼내보겠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이 책의 첫 장만 주야장천 읽었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코스모스라는 저명한 서적을 썼다’는 것을 머리에 박아 넣은 지 대충 십 년이 지났다는 뜻이다.

서평 제목	유쾌한 비웃음이 필요한 당신에게	참가번호	2023-20
<p>첫 만남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동네 의사 선생님이 ‘이 책은 꼭 읽어라.’ 하며 대뜸 책 제목을 알려줬다. 학구적인 청소년으로 여겨지기 좋아했던 나는 다음 진료에서 후기를 전해줄 생각으로 18,500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5년 동안 ‘수학의 정석’ 보듯이 봤다. 손때가 앞부분에만 탔다는 뜻이다. 나는 아직도 그 병원에 다니지만 완독한 후에도 선생님께 독후감을 전해드리지는 못했다. 청소년이면 모를까, 학구적인 청년은……. 아마 선생님께서도 다 커서 스물다섯이 된 내 독후감에 감동하기는 힘들지 않을까.</p> <p>그런 속사정으로 내게 코스모스의 앞머리는 유쾌하고 독특한 울림을 가지고 있다.</p> <p><i>‘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 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 등골이 오싹해지고 …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렵 뜻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 코스모스를 정관 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i></p> <p>이 책은 실제로 내 방 책꽂이에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는 데다가 아마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성장기 내내 숨겨두었던 미지를 들여다보는 기분에 휩싸이는 것이다. 스치는 것만으로 미소가 스미는 감정이 간질간질, 날숨을 맴도는 기분.</p> <p>나는 읽을 적마다 외계어를 듣는 심정으로 종잇장을 넘겼다. 사실 지금도 외국어를 공부하는 심정으로 읽는다. 그런데도 종잇장이 부드러워지고 끄트머리가 닳게끔 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별처럼 총총히 박혀있는 지식은 온전한 내 것이 되지 못했으나, 10²²개의 별이 뜬 우주 밤하늘과 2억 5천만 년에 한 번 회전하는 우리은하, 속에 든 4000억 개의 별 낱알과 300만 년 전 점처럼 찍힌 인류의 시작이 그것만으로도 위로였기 때문이다. 이 범우주적이고 담담한 위로는, 때로 어떤 ‘말’들 보다 나를 효과적으로 일깨운다.</p> <p>앞서 고백했듯 나는 과학적으로 무지하다. 과학적 소양이 뛰어난 독자들이 음미했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없다. 내가 느낀 것들은 감성적이고 개인 중심적일 것이다. 지구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글과 글 사이 틈만 나면 꼬집었던 칼 세이건이 알면 하늘에서 슬퍼할지도 모른다.</p> <p>나는 생각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 나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고 현대인들은 대부분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에 허덕이면서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생각 과잉’이 멋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순하시네요’를 욕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를 칭찬으로 사용하니까.</p> <p>나는 타인의 생각도 그만큼 받아들인다. 비평이든 비난이든 어금니에 숨겨두고 잘근잘근 오랫동안 씹는다. 오래 두고 씹어서 해체된 알맹이가 타당함이든 부당함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완벽함’이란 없다는 것이야말로 완벽한 진실임을 알면서도 그렇다.</p> <p>나는 사랑에 방어적이다. 특히 연애에 있어서는 이만한 바보가 없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사랑하</p>			

서평 제목	유쾌한 비웃음이 필요한 당신에게	참가번호	2023-20
-------	-------------------	------	---------

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황당한 결투를 벌인다.

나는 성공에 염세적이다. 자차(自車) 와 자가(自家)가 성공을 보여준다고 믿지 않는다. 직업의 유명도와 명예가 삶을 묘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의기양양한 청년 행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의심하기 시작한다.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나? 어른들이 얘기하는 ‘독기 없는 요즘 애들’이 된 건가?”

달과 지구 사이 각도를 재기 시작할 때 과학에서 손을 떼 나의 언어는 지극히 ‘문과’적이라서, 뜬금없는 치부를 적어보았다. 내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다. 고개를 저을 수야 있겠지만, 메모지에 본인 치부를 적어보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텅텅해질 것이다.

‘코스모스’는 이런 우리를 비웃어줄 것이다. 불쾌한 조소가 아니라 시원한 자조다. 코딱지만 한 지구에 더 코딱지만 한 우리가 그중에서도 부분인 뇌를 사용해 하는 생각들이란 그보다도 더 코딱지만 한 작은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양의 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만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황당무계하다고 여겼다.’고 한다. 그리스인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우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야 우리는 같은 호모 사피엔스니까 아무래도 비슷할 것이다. 그들이 태양의 크기를 확신했듯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훌륭함에, 완벽함에 확신한다. 사소한 ‘정답’들을 공유하며 ‘이러이러’ 하게 ‘저러저러’ 한 것을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것이라 학습한다.

그리스인의 확신이 21세기에 아무런 울림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확신에도 자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은 가변적이고, 실상 그렇기에 사람답고 의미 있는 것이다. 인류는 늘 지난 세대의 오류를 꼬집으며 하찮게 여겨왔다. 그러니 어느 서평 대회의 부족한 출판작이기가 막히게 데이터 무덤에서 좀비처럼 살아남아 몇백 년 후의 인류에게 비웃음당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갖가지 비웃음이 되려 해방감을 주지 않는가? 침예하게 다투던 개인이 멀어지고 우리가 되었다가 집단이 되어 점처럼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시달리게 하던 덧없는 치부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진다. 어떤 마음의 양식도 해주기 어려운, 숫자의 세계만이 베푸는 효과적인 위로법이다.

‘코스모스’는 과학서이지만, 동시에 역사서다. 우연한 공간에서 만들어져 우연히 맹렬한 자취를 남긴 채 필연하게 사라지는 모든 물질과 생명에 관한 역사다. 그것을 궁금해하여 학습하고 고민했던 많은 사람의 생을 스치듯 질주하는 크고 빠른 역사다. 여행지의 광활한 풍경을 보면 본국에서의 삶과 투쟁이 무의미해지듯이 그토록 큰 범위의 활자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만든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심리와 철학을 고민할 때 우리는 내면에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본다. 행동한 가지에 무엇이 결부되어 있는지 살살이 뒤져내어 설명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주목

서평 제목	유쾌한 비웃음이 필요한 당신에게	참가번호	2023-20
<p>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갈등하는지 목격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와글와글하게 모여 있는 인간군상. 그보다 멀리 가 행성과 우주를 들여다볼 때도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 배운다. 수많은 법칙을 만나고 계산을 거쳐 복잡한 연산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것은 또다시 우리다. 책의 초반부로 돌아와 첫 문장을 만나는 것이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모든 것이므로.</p>			
<p>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져 비로소 우리를 이해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방됨이 필요하다. 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탐구하는 데에 몰두하는 것에 비해 ‘우리’를 탐구하지 않아 벌어지는 몰이해가 두렵다.</p>			
<p>‘MZ세대’는 옷을 입힌 표현이고, 우리는 혐오의 세대에 와 있다. 유행병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 자국과 외국이, 부와 가난이, 노년과 청년이, 기혼과 미혼이, 남성과 여성이, 당신과 내가. 덮어두고 ‘미성숙하고 못돼먹은 인간이라 그렇다’고 하기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타당한 근거들도 있다. 왜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왜 잘못했는지 상세하게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가 쌓여있다. 그러나 다음의 것들은 비교적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미워하는지, 우리가 왜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p>			
<p>결국 이 질문들은 우리 이후 세대가, 신랄하게 비판하며 연구하게 될 다음 비웃음거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은가. ‘학생의 왕도’라는 믿음 하에 대학에 진학한 전체 고교생의 70%인 우리는, 타자를 이해하는 일이 나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이런 지점을 마주할 때 나는 ‘코스모스’를 읽을 때와 비슷한 비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그때의 정답이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 이렇게 빛바래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정답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p>			
<p>오늘도 서점에는 수십 권의 자기계발서와 ‘나는 괜찮아’가 적힌 심리학책, ‘00세에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경제 서적이 팔렸을 것이다. 당장 정답이기 때문이다. ‘꼰대’와 ‘진상’과 ‘충’들로 가득한 ‘노답’인 세상을 ‘참교육’해 ‘사이다’ 마실 수 있기를 ‘존버’하는 세대. 너무 많은 것들을 지나치게 가깝게 보는 세대. 어차피 ‘노’답이라면 정답 찾기와 ‘나’ 들여다보기를 때려치우고 우리에게 대해 고민해보면 어떨까.</p>			
<p>‘이번에야말로 정답을 알려주겠다’ 는 책들 사이 고리타분한 700페이지, 수능 이후 들춰보지 않아 케케묵은 천문학, 인스타에 올리기엔 ‘힙’ 하지 않은 촌스러운 표지. 정답이 아닌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p>			